

UAM 팀코리아 ·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맞손, ‘UAM 버티포트 설계 기준’ 만든다

- 22일 건축물과 버티포트 융합 위한 워크숍 개최… UAM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2월 22일(목) 오후 4시 서울(스페이스쉐어서울역)에서 개최한다.
 - * 팀코리아 내 버티포트 구축·개발 등을 논의하는 민·관·산·학 실무협력 분과(‘23.5월~)
 - ** UAM·로봇·자율주행 등의 건축공간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23.2월~)
-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①버티포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현황, ②버티포트 설계기준(안), ③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버티포트 설계기준은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참여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승욱 (044-201-4197)
		담당자	사무관	김헌태 (044-201-4306)
			주무관	손달현 (044-201-4198)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진철 (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조관우 (044-201-3758)



참 고1

UAM Team Kore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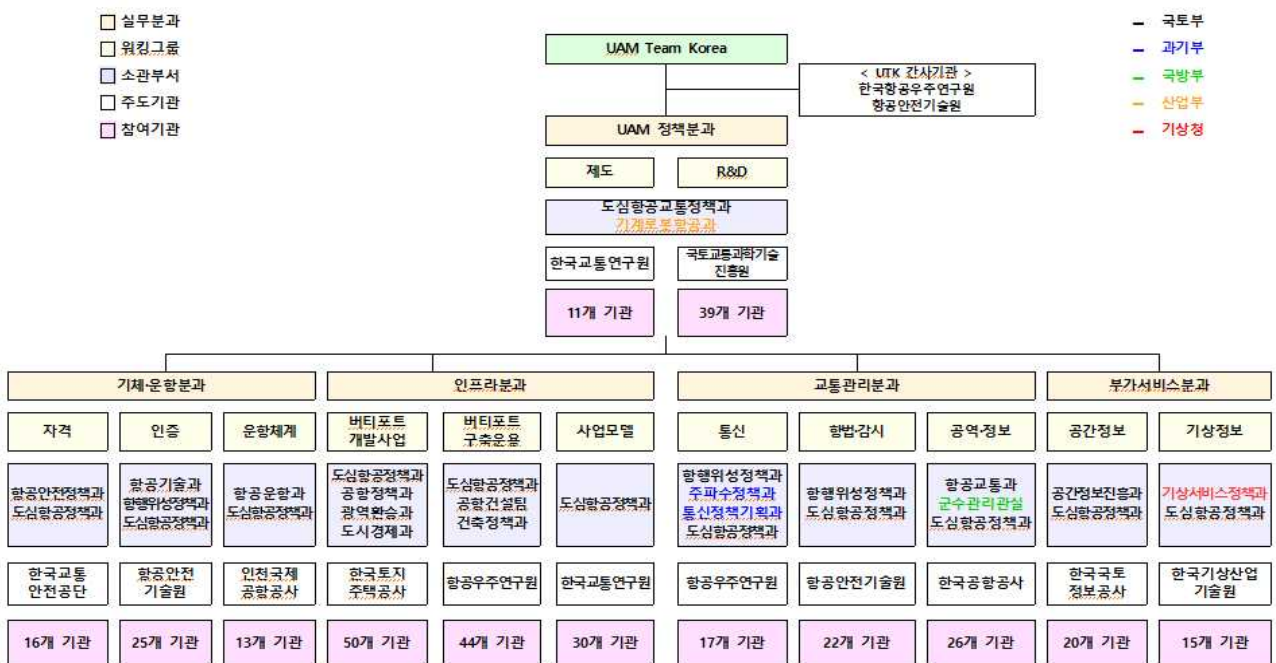
□ 국토부 2차관 위원장으로 UAM로드맵의 공동 이행, 신규과제의 발굴 및 주요시장·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

* 주요사항을 논의·의결하는 참여기관(47개)과, 동향을 공유하는 초청기관(60여곳) 등

○ 신속·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과장급 주재)와 함께, 전문·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산하 5개 실무분과(13개 워킹그룹^{WG})*도 구축·운영 중

* ①정책(2개 WG), ②기체운항(3개 WG), ③인프라(3개 WG), ④교통관리(3개 WG), ⑤부가서비스(2개 WG)

【5개 실무분과 및 13개 워킹그룹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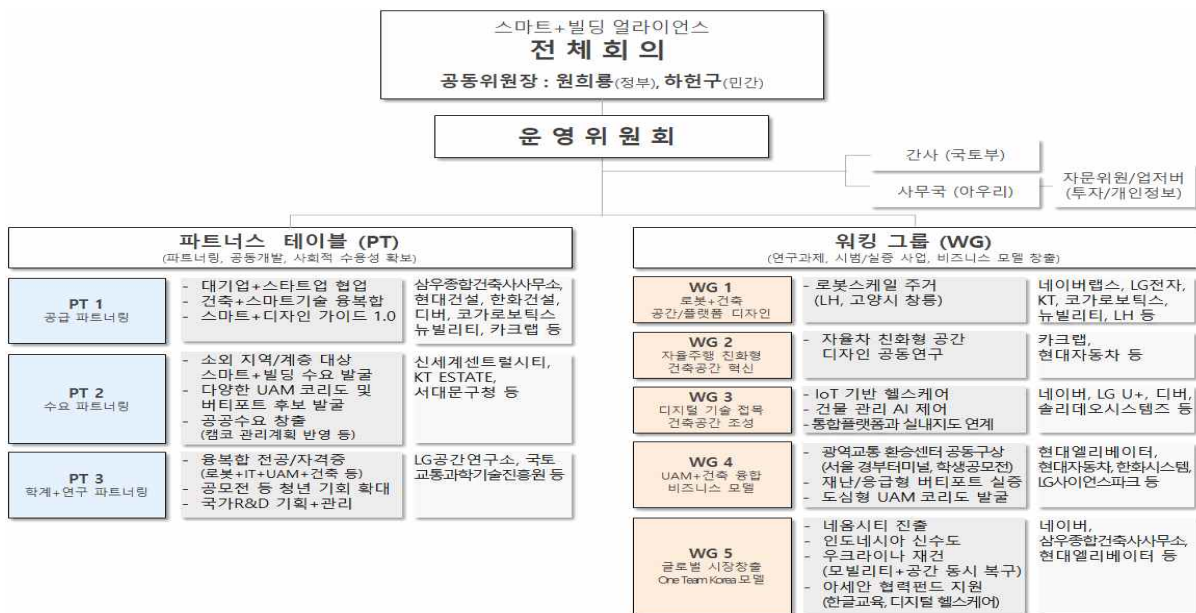
○ 인프라 분과(3개 워킹그룹) 참여기관

워킹그룹 (참여기관)	참여기관		
	중앙부처·지자체	산업계	학계·공공기관
버티포트 개발사업 (50)	국토부, 경찰청, 대구, 울산, 인천, 제주, 경북, 경남, 충남	GS건설, CJ올리브네트웍스, LG CNS, KT, SKT, 간삼건축, 롯데건설,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정보통신, 네이버, 미래에셋건설, 루다시스, 볼트라인, 스카이포츠, 대우건설, 모비에이션, 사이트랩, 오피스베타, 신세계프라퍼티, 테크트리이노베이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티맵모빌리티, 하나은행,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토프모빌리티, 클로버스튜디오, 파블로항공	KAIST, 국민대, 서울대, 항공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버티포트 구축운용 (44)	국토부, 경찰청, 대구, 부산, 인천, 경북, 전북, 충남, 고양	신세계프라퍼티, GS건설, 한화건설, LG전자, SITA, SKT, 간삼건축, 대한항공, 롯데건설,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켄코아에비에이션, 티맵모빌리티,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현대오트모에버, 현대자동차, 토프모빌리티, 루다시스	청주대, 교통대, 항공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업모델 (30)	국토부, 인천, 제주, 경북, 경남, 충남	KT, SKT, 대한항공, 롯데건설,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 대우건설, 신세계프라퍼티, 아이지아이에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카카오톡, GS건설, 티맵모빌리티, 한화시스템, 현대오트모에버, 현대자동차, 효성중공업(주), 토프모빌리티, 제주항공, 한진정보통신	국민대, 항공대, 한국교통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참 고2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개요

- (얼라이언스)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민·관·산·학 얼라이언스 확대 운영
 -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스마트+빌딩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 스마트+빌딩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Task 단위 Working Group(WG) 및 Partner's Table(PT) 운영



<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

- (공급기관: 33개) 네이버, 네이버랩스, 네이버클라우드, 뉴빌리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디비, 모라이, VUS, 솔리데오시스템즈, 스튜디오갈릴레이, 에바, SKT, 에이테크, LG사이언스파크, LG U+, LG전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주)이에이엔티크놀로지, 주식회사 디폰, 참깨연구소, 카크랩, KT, 코가로보틱스, 코나투스, 코다(주), 트위니, 파이파킹, 포스코, 포스코A&C, 하림산업, 한화시스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 (수요기관: 27개) 가천대 길병원, 간삼건축, 경찰청, 고양시청, 다올금융그룹, 대우건설, 마스턴투자운용, 삼성물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건축,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청, 신세계센트럴시티, 쏘카, 우아한형제들, LG경영연구원, 이지스자산운용, GS건설, 청년재단, KT ESTATE,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화건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 (학계+연구기관: 20개)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부산도시공사, 스마트도시협회,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 세종대학교 딥러닝건축연구소, 인하대학교 하현구 교수, 청주대학교 윤성훈 교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남대학교 백한열 교수, 항공우주연구원, 세종대학교 황호연 교수, KAIST 김영철·차승현 교수,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함남혁 교수

- (전담조직)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스마트+빌딩 전담 부서를 국토부 내 신설하고, 정책 지원기구로 건축공간연구원 지정('24.上)
- 산업 차원에서 발전을 지원하는 스마트+빌딩 진흥원 설립 추진('26~)